

민생·정책 뒷전 막말·정쟁...역대급 '막장 국감' 우려

서해 피격사건 감사·이재명 수사 김문수 고발 등 곳곳 뇌관 수두룩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은 정쟁과 막말 논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심의 주름을 깊게 하고 있다.

특히, 열흘 가량 남겨진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서해 피격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인 관련 고발 등 각종 정치적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 역대급 '막장 국감'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은 이제 반환점을 돌며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사실상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이같이 국감이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쟁과 막말 논란은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오는 18일 법사위 국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검찰청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이 대상이어서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 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릉지구 특혜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 법안카드 유용 등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방어하는 여당의 대치가 예상된다.

같은 날 진행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문제 삼을 태세이고, 여당은 이들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21일 국감에는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에 대한 '커닝 페이퍼' 논란도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 등 사안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가 오는 20~21일 육해공 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는 최근 현무-2C와 SM-2 합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21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감에서도 MBC와 YTN 세무조사와 부자감세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도 결국 정쟁으로 인한 맹랑 국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감은 야당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정치 공세를 잠재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한 민주당의 실정이 더 크게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위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성·송기현·윤건영·윤영덕·한정애·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감사원 '서해 피살 사건' 20명 수사의뢰...여야 대치 격화

민주 '감사원, 대통령실 하수인 전략' 국힘 "은폐·조작...국기문란 사건"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조류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헌

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황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은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공개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자다가 봉창 때리나"라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문재인 대통령, 서훈, 박지원에게 감사하

는 감사원이 되어 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 대해 "국가가관이 총출동, 철저한 은폐하고 조작한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덮여져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28%...4주 연속 20%대

한국갤럽 조사...1%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으로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하락(29%→28%)하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9월 4주 이후 4주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률은 60%를 넘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지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5%),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10%),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발언 부주의', '독단적/일방적'(이상 6%),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 '인사(人事)'(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국방/안보'(11%), '외교'(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7%),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6%),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 정의당 3%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GWANGJU · NAJU

나주배 쌀빵
13,000원
10,400원

담솔목주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DAMYANG · MOKPO

담양 대일솔이 들어간 약주
15,000원
12,000원

01. 광주의 오밀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퀴 |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빵

01. 담양 대일솔이 들어간 약주 |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